

문학 평단에도 '세대교체' 바람

권위주의에 도전하는 젊은 평론가들의 목소리

저널리즘의 명칭 그대로 80년대 전반기가 '시의 시대'라고 한다면 80년대 후반기는 '비평의 시대'인 것처럼 보인다. 최근 잇달아 나오고 있는 젊은 평론가들의 평론집은, 4·19의 성공과 좌절이라는 후광을 업고 등장한 60년대 비평가들이나, 거센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문학의 본원적 자리를 찾으려 애썼던 70년대 비평가들과 다른 독자적인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어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80년대 신진 비평계의 총결산

금년 상·중반기에 걸쳐 박덕규(「시의 세상 그늘 속으로」, 한겨레), 이운택(「해체 실천 그 이후」, 청하), 김태현(「열린 세계의 문학」, 문학과지성사), 이동하(「우리 문학의 論理」, 정음사)의 평론집이 상재된 데 이어 하반기에 들어서 진형준의 「또 하나의 세상」(청하)을 비롯, 성민엽의 「문학의 빈곤」, 정과리의 「스미고 짜임」, 구모룡의 「구체적 삶과 형성기의 문학」이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되었고, 향도 부산에서 문학운동을 이끌고 있는 황국명(「비평과 형식의 사회학」, 지평)과 남승우(「전환기의 삶과 비평」, 지평)가 각각 첫 평론집을 냈다. 여기서 연말·연초에 걸쳐 장석주, 홍정선의 평론집이 선을 보일 예정으로 있어 80년대 비평계는 이제 총결산에 접어든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평단에 '세대교체' 바람을 몰고 온 이들 젊은 평론가들은 '신예'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어색할 정도로 확고한 자기 세계를 구축했으며 저마다 독특한 논리체계와 뛰어난 작품 감식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 이념과 세계관, 문학관, 창작방법론 등에 있어서 극과 극을 달릴 만큼 다양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지만, 비평의 지도원리와 선도성을 강조하는 민중문학론자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동질성을 갖고 있다. 즉 발표되는 작품과 유리된 채 사회 상황으로부터 연역해서 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짓는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작품읽기를 통해 그 속에 깃든 의미를 풍요롭게 읽어 내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들 평론집엔 실제 비평이 차지하는 양이 그만큼 많으며, 해석과 평가가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들은 문학을 사회 하부구조의 단순 반영이라고 보는, 속류마르크스리즘의 낡고 경직된 관점에서 탈피, 문학과 현실의 상호구속성을

정교하게 이론화하는데 그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념에 투철한 세대'답게 80년대라는 광폭한 시대상황이 가한 압력에 정면에서 대응해나가되 그것이 또하나의 억압이 되어 문학의 상대적 자율성마저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텍스트의 심층을 파헤치는 정교한 분석력

이들 젊은 평론가들 가운데 아마도 '80년대적 감수성'에 가장 어울리는 비평가로 정과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되어야 난다.
80년대가 황혼으로 접어드는 지금 젊은 평론가들이 잇달아 평론집을 펴내고 있다.
격동했던 80년대의 정치현실에 대한 '오월세대' 비평가들의 문학적 응전. 텍스트읽기를 통한 세상읽기는 어디에 가 닿고 있는가.

리와 진형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문체 자체에서부터 그 개성을 강렬하게 내뿜는 이들은—진형준의 미로를 연상시키는 길고 유연한 문장은 정과리의 예각적이고 논쟁적인 문장과 좋은 대조를 이루면서, 김현이 개척한 아포리즘에 육박하는 시적 직관의 문체와 백낙청의 엄숙한 가부장적 문체와 대비를 이룬다—80년대 비평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진형준이 대상이 되는 작품을 감싸안으면서 서서히 휘감아 들어간다면, 정과리는 자르고, 나누고, 비약하고, 부딪치며 생성한다. 진형준이 작품을 자유롭게 풀어놓은 상태에서 그 의미를 증폭·확장시키고자 한다면 정과리는 자기 나름의 견고한 틀 속에 가두고 해부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도표, 그림까지 등장하는 정과리의 비평은 자칫 자신이 만든 틀에 자신이 갇혀, 비평이 작품 앞에서의 독백에 그칠지 모른다는 위협을 갖고 있으며, 진형준의 비평은 어지러운 미로 탐색이 처음과 끝이 맞물리는 원환 속에서의 자기충족적 회귀의 양식으로 끝나고 말지도 모른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사람은 텍스트의 표면적 의미 찾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아래

심층까지 꿰뚫어보는 해안의 소유자들이라는 점에서 80년대 문학은 그들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이 응시하는 텍스트의 심층은 표면에 가려져 자칫 외면되기 쉽지만 실은 작품 전체를 암암리에 결정·유도·통제하는 내밀한 요소로서, 이들은 이 심층구조를 드러냄으로써 표면적 의미를 전복하고, 대상을 해체—재구성한다. 평범한 독자로서는 쉽게 다다를 수 없는 이러한 비평전략은 특정 작가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을 뛰어넘어 대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독법을 제시하며, 작품의 감춰진 부분, 연결되지 않은 부분, 누락된 부분을 밝혀내고 이어주는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정과리·진형준 이 두사람이 응시하는 심층은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과리가 마르크스 이후 골드만, 알튀세, 마세레이같은 문학사회학과 데리다의 해체이론의 시각을 빌어 오늘의 문학판도를 조망하고 있다면 진형준은 프로이트, 융, 바슐라르, 질베르 뒤랑으로 이어지는 심층심리학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듯하다. 각각 김현의 좌측과 우측에 서있다고 보여지는 이 두명의 평론가들이 앞으로 지배적 담론으로 위치를 굳힌 민중문학의 철벽체제를 어떻게 돌파해낼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서울과 지방의 종속관계에 도전

이처럼 서울문단에서 민중주의와 지성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동안 새롭게 자생력을 키우고 서울문단에 도전장을 낸 것이 부산문단이다.

80년대 초반 「지평」 「전망」 등의 무크지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린 부산문학은 특히 평론분야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여타 지방과 구별된다. 부산 못지않은 수의 작가와 시인을 보유한 지방도시는 있어도 부산만큼 탄탄한 비평가군을 갖춘 도시를 찾아보기란 어렵다. 이운택, 민병욱, 남승우, 황국명, 구모룡 등 이들 부산의 신예 평론가들은 우리 문화계의 구조적 중앙집중현상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중심부(서울)와 주변부(지방)의 종속관계를 수평관계로 변환시키고자 노력한다. 그 노력이 때문 지나친 조급함과 연결되면서 지방의 서울을 향한 선망감의 왜곡된 표현이란 빈축을 사기도 했지만 이들이 서울을 정점으로 하는 문화계의 피라밋구조를 부수는데 공헌한 것을 인정하는데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성민엽씨



정과리씨



구모룡씨

그런데 한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이들이 일차적 표적으로 삼은 것이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주의가 아니라 「문학과지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성주의라는 점이다. 70년대 한 시인으로부터 「문법주의자의 성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바 있는 문지는 세련되고 깊이있는 논리로 추앙받은 만큼이나 그 사정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폐쇄적이고 엘리트층에 취해 있다는 원성을 사기도 했다. 작년에 출간된 「문학과지성 비판」(민병욱 외 지음, 지평)에 이어 최근 출판된 황국명의 첫 평론집 「비평과 형식의 사회학」은 메타비평의 관점에서 문지의 이런 측면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다.

명망상에 도전하는 이상과피적 태도는 그 자체로 신선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지방문학이 진정 서울문학과 수평을 이루려면, 서울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는 지금 단계에서 발전적으로 더 나아가 할 것으로 보인다.

—남진우 기자